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

祝 辭

2019. 6. 3(월) 14:0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금융위원장 최 종 구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님, 유동수 의원님, 유의동 의원님,

정부 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핀테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준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영기 금융보안원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경제·금융시스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경쟁(Digital Competition) 촉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II. 초연결사회에서 데이터와 디지털 경쟁의 의의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센싱 등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사람과 사물이 다각적으로 이어지는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산업분야 간, 온-오프라인 간에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른바 ‘빅 블러(Big blur) 현상’이 확산되면서
기존 산업과 일자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알리바바 등 ‘빅테크(Big Tech)’ 기업집단은 압도적인 고객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지급결제·대출·신용평가 등 금융산업에도 진출 중입니다.

인간의 편견을 극복하는 AI·딥러닝 등의 기술과 함께 유통·통신 관련 정보, 디지털 행동패턴 등 다양한 비금융(非金融)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게 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생산적·포용적 금융’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❶ 우선, 기존의 금융데이터 위주의 신용평가로 인해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했던 계층도 ‘더 낮은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❷ 다음, 카드결제·매출 데이터, 전자상거래 정보 등 생생한 데이터들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도 정밀한 상권 분석, 타겟 마케팅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❸ 나아가, 사업성 있는 중소기업·자영업자도 일반상거래, 전자상거래, 외상매출채권 등 사업의 성장성, 경쟁력에 관한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빅데이터·AI 기반의 혁신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빅테크, 대형 금융사가 갖는 ‘네트워크 효과’ 등이 창업·핀테크 기업 등에게는 새로운 진입장벽이 됨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유력합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디지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¹⁾

무엇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이 디지털 경쟁의 핵심요소라는 관점에서,

- ① ‘데이터 개방’(Data Openness)과
- ② ‘데이터 이동권’(Data Portability/Personal Data Mobility)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Ⅲ. 디지털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통해 디지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① 우선,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신용정보법」을 비롯해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안에서는 **익명·가명정보** 중심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민간·공공의 ‘데이터 개방’을 적극 촉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 ② 한편,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혁신과 경쟁이 일어나도록 금융분야에서부터 「마이데이터(MyData) 산업」과 함께 ‘데이터 이동권’을 우선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 ③ 디지털 금융혁신의 다른 축인 ‘지급결제’ 분야에서도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에 개방하는 등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 [英 재무부] Unlocking Digital Competition (‘19.3월)
[OECD] Harnessing Digital Transi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9.5월)

이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디지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데이터활용으로 금융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규율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정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데이터경제 3법의 시행에 미리 대비함과 동시에,
창업·핀테크 기업, 중소기업, 학계, 일반 연구자 분들도
정부 정책의 효과를 신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V.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향

❶ 먼저, 신용정보원의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금융분야 데이터는 정형화된 소비패턴,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만큼
학계·연구자, 창업·핀테크 기업 등의 수요가 많았지만,

금융회사 간에만 정보의 공유가 이뤄지는 특성상
신용정보원이 집중관리하는 데이터에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의지가 있는 누구에게나
안전하게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와 분석시스템을 제공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빅데이터 개방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② 다음으로, 데이터의 원활한 중개·유통을 위해
금융분야에서 우선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해 나겠습니다.

흔히, 데이터를 원유(原油)에 비유하지만,
金이나 석유와는 달리 데이터 거래는
안전한 활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조건입니다.

정보보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금융보안원에서
금융·ICT·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안전하게 유통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거래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③ 한편,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데이터 전문기관’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게 됩니다.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이종(異種) 산업간 데이터 결합이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거래소」 서비스와 연계하여
데이터 ‘결합’과 ‘중개·유통’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의 융합신산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정보주체의 데이터 이동권에 기반한
마이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 API」 구축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등 전 금융권,
나아가 정부·공공기관, 통신사 등을 아우르는
오픈 API로서 데이터 표준 API는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V. 마무리 말씀

제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유관기관, 산업계 종사자 여러분들께는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보안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국회, 정부, 산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함께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데이터 혁신의 급류 속에
함께 노를 저어 앞으로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개방은 그 시작입니다.

앞으로 **금융분야에서 디지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데이터 활용으로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